다산포럼

민병욱

책에서 위안을 찾다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지난 설을 쇠며 내가 받은 느낌은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됐다. 모두가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했다. 내 주변인들이야 평생 서민층으로, 팍팍한 세파에 부대끼느라 힘이 다 빠졌다지만 명절날까지도 '죽을 상'을 펴지 못하는 건 큰 충격이었다. 예의상 나누던 덕담은 오히려 사치스럽게만 느껴졌다. 어떤 음식보다 맛나게 설 상머리에 오르던 웃음이 사라진 관이니 거기에 무슨 희망가가 나오겠는가. 무슨 잔치 분위기가 일겠는가. 입만 열면 근심 걱정이 쏟아졌다.

오직 TV 속에만 웃음이 있었다. 큰 몸짓으로 유명한 개그맨이 연방 가식적 너털웃음으로 명절 분위기를 돋우려 애를 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꼴도 못 봤다. 직장에서 쫓겨난 친척이 "야, 텔레비전 꺼라! 도대체 뭐가 좋다고 웃고 있냐?" 쏘아붙이자 좌중은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누군가 언뜻 객쩍은 농담을 해봤지만 이내 큰 한숨에 묻혔다. 서로가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수저질 만 해댔다. 부모형제,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설날 아침이 이런 적은 일찍이 없었다.

걱정은 '원초적'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였다. 수사(修辭)로서의 먹고 살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살기'였다. 빚이 얼마고, 직장이 어떻고, 자식들 취업이 어쩌고, 교육비가 얼마고 간에 얘기는 모두 그 원초적인 먹고 살기로 귀착되었다. 아,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사느냐"는 문제라니! 21세기, 인간의 기술과 발전이 하늘이라도 찌를 듯 높아진다던 세기, 그 첫 10년 안에 닥친 크나큰 걱정이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살기'라니!

불안은 전염병과 같다. 설 아침을 그렇게 보내고 나도 웃음을 잃었다. 매사 짜증이 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래선 안 된다면서도 참담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사실 어제 모처럼 책을 뒤져 이 글을 찾아내 한바탕 크게 웃지 않았더라면 그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이라곤 겨우 '맹자' 일곱 권뿐인데 오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200전에 팔아 그 돈으로 밥을 지어 실컷 먹었소. 영재(柳得恭)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더니 그도 굶주린 지 오래라, 내 말을 듣자 즉각 '좌씨전'을 팔아 쌀을 사고, 남은 돈으로 술을 받아 마시게 했소.

이야말로 맹자가 직접 밥 지어 나를 먹이고, 좌구명(左丘明)이 손수 술 따라 내게 권한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나는 맹자와 좌씨, 두 분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칭송하였다오." (안대회, 〈고전산문 산책〉(휴머니스트) - 이덕무 편)

스스로 책만 보는 바보로 칭한 이덕무가 글 벗 이서구에게 보낸 쪽지다. 백면서생의 궁상맞은 넋두리처럼 들리는 이 글이 무어 그리 우스운지 처음엔 낄낄대다, 나중엔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책 팔아 밥과 술을 먹으면서도 맹자가 밥과 술을 샀다고 호기를 부리는 문사(文士)의 자부심, 게다가 그 운치와 정감이라니. 대학생 시절 책이나 학생증을 맡기고 밥을 먹어 본 일이 있는 이라면 이쯤에서 '그까짓 먹고 살기'에 대한 근심 따위야 훌훌 털어내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리고 쪽지의 말미.

"우리들이 한 해 내내 이 두 종의 책을 읽는다 해도 굶주림을 한 푼이나 모면할 수 있겠소? 이제야 알았소. 독서를 해서 부귀를 구한다는 말이 말짱 요행수나 바라는 짓임을. 차라리 책을 팔아서 한바탕 술에 취하고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마음 아니겠소? 쯧쯧, 그대는 어찌 생각하오?"

말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손에서 책을 못 놓는 사람들, 야무진 자부심으로 "너는 그러렴, 나는 그래도 책을 읽을 거야"라고 눙치는 능청. 이덕무의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위안을, 그리고 희망을 찾아냈다. 〈간행물윤리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복순

시각장애인들은 일하고 싶다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고용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섣불리 생각해 보면 모두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다. 우리의 현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측하게 한다.

이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십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노동이라는 사회참여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이룰 기회가 왜 주어지지 않는가를 우리 모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120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급식비, 장애인 수당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 줄 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은 직업훈련원을 통해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 개발은 물론 꾸준한 노력도 기피하고 있다.

"이들 중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능력이 있지만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질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취업을 하면 많이 벌어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 가족을 부양하고, 매월 꾸준히 들어가는 의료비 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현행법상 이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들의 노동 의욕을 정부가 꺾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 구조 때문에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한 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말이 생겨났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말로만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노동부 주관하에 열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또 한 번 복지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사무관도 이바지하게 한 문제를 알고 있고 고민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재의 복지 정책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체를 가진 장애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는 힘들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정부분 의료 혜택이나 지원금을 계속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섣불리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단정짓는 마음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정책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되고, 국가 통합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단법인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기고

최정주

절수(節水), 이제는 실천을

최근 물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다. 각종 언론에서의 물 부족을 우려하는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시 주변의 각종 저수지 등 담수지의 현저하게 줄어든 수위를 비롯하여,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이 드러나는 등 다른 이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절로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부족사태가 지속됨은 물론, 오랜 가뭄으로 인한 각종 산불현장에 대한 소화용수 및 농번기 도래시 농업용수 부족도 예상된다고 하니, 당장에 시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당·명나라, 발해 및 마야문명 등 고대사례에서 보듯이 가뭄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작금의 국내외적 경제적 어려움에다 가뭄까지 겹치게 되는 경우 시민 정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드는 것이 기우에 불과하길 바라는 심정이다.

지난해 강수량은 1천28mm로 평년대비 78%에 불과하여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1994년(945mm), 2001년(1,058)과 비슷한 수치이나, 광주·전남 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상 7~9월에 평년 수준인 1천mm 안팎의 강우가 내려야 생활용수와 다음해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광주 425mm, 전남 345mm의 강수에 그쳤고, 올해 3월까지 강수량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가뭄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더하게 된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뭄 극복의 장치마련은 예방위주의 과학적 방재정책과 구성원의 자율실천이 그 밑바탕이 된다. 우리 시에서는 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대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가뭄극복을 위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가뭄 상황관리와 급수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예찰 활동 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소방 당국에서는 가뭄진행 상황에 따른 일정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해소를 위한 민·관의 총력대응태세를 구축함은 물론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및 물 절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실천이다. 물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자. 생활주변에서 무심코 흐르는 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물 아껴쓰기'를 시작하자.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생활현장에서부터 물을 아끼는 방법을 생각하고, 생각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소중하게 아껴지는 그 물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생활을, 그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가자. 물을 아끼는 정성과 습관으로 '1등 광주 1등 시민'의 숭고한 저력을 지금부터 활짝 꽃피워 나아가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선진국형 '실종수사 시스템' 도입 납치범죄 예방을

요즘 광주일보에서 보도한 경기도 군포의 여대생 살해 암매장 사건 전후과정 기사를 읽다 보니 경찰의 초동수사가 약간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실종과 납치, 살해 사건이 적잖음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고, 실종이나 납치 등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종합 실종수사 대응방식을 도입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은 FBI에 실종수사 전담반을 두고 이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왕립 기마단 산하에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보니 범인을 조기에 발견해 신고해도 범인은 이미 검문검색 포위망을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 미국의 유괴예방기구는 홈페이지에 유괴와 실종을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올려놓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황이 없는 부모가 실종자의 실종 이후 시간대 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유괴와 실종을 구분하기 위해 피해자 좋아하는 물건이 함께 없어졌는지, 피해자가 자주 이동하는 동선과 코스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는다.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유괴 실종 대처방안과 교육 예방법을 만들어 사행해야 할 것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평일 열리는 졸업·입학식 주말에 하면 어떨까?

매년 2~3월 두 달은 초·중·고·대학의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축하와 격려의 물결이 이어진다.

"졸업가를 부르며 훌쩍거리고 송사, 답사가 이어지면서 눈물 바다가 됐던 70, 80년대 졸업식은 이미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졸업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자리에 축하와 격려가 따르는 일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 자리를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이 함께한다면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모두 평일에 거행되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애태우기 일쑤다.

그래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두 가지 행사를 치르도록 한다면 좋을 듯 싶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반발도 적을 것이고,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참석하지 않아 쓸쓸한 졸업식과 입학식을 해야 하는 외로움도 덜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광주 전남지역 초중고와 대학 졸업식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거행을 기대해 본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사설

괄목할 지역고교 학력향상 일회성 안돼야

광주·전남지역 고교의 학업 능력이 괄목할 만하게 향상됐다고 한다. 올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42개 전체 인문고가 동시에 1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해 기염을 토했다. 물론 서울대 합격생 숫자가 학력의 절대척도가 될 수 없지만 국내 최고 명문대에 많은 학생을 들여 보냈다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009학년도 서울대 최종 합격자 가운데 광주 출신은 147명으로, 지난해 132명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남 역시 지난해보다 7명 많은 89명이 합격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올 서울대 신입생 정원이 9%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주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 간 격차도 주는 등 양과 질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전남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매우 유의미한 실적이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한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든 지역이든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1세기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는 교육, 의료, 관광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 강국'만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광주·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나는 첩경인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교육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자체가 교육에 올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학교, 지역민이 교육 경쟁력 강화에 지혜를 모아 학력향상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반토막' 난 수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1월 수출이 지난해 1월보다 32.8% 감소한 216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가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적자를 냈다. 수출이 줄더라도 수입이 더 줄어 흑자는 자신 있다던 정부의 낙관과 달리, 새해 첫 달부터 펑크를 내고 만 것이다. 1월의 수출 감소폭은 월별 수출입 통계가 남아있는 1980년 이후 최대일 뿐 아니라 지난해 7월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수출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제 실물지표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전년 동기대비 -18.6%)과 설비투자(-24.1%) 증가율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가동률 역시 62.5%로 급락했다. 이는 작년 3월(73.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9개월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우려했던 마이너스 성장에 마이너스 일자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온통 잿빛투성이건만 정부의 대책은 장밋빛이다. 정부는 2일 "1월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올해 수출목표치인 4천500억 달러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의 새 수출시장인 중남미, 아세안 등 개도국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출감소 원인이 전 세계적인 수요위축에 기인한 만큼 이 같은 낙관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이상 현실적 수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높은 성장률 목표치를 장기간 고수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내수부양에 진작해야 한다. 재정지출을 더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無等鼓

정관의 치(治)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설 연휴 지인들에게 선물한 한 권의 책이 화제를 모았다. 정 의원이 아는 이들에게 보낸 책은 '정관(貞觀)의 치(治)'. 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좋은 정치를 펼친 황제로 기록된 당(唐) 태종 이세민(李世民·재위 626~649)의 치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관의 치'는 이세민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책의 진가는 태자와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쥔 이세민이 겪었던 고뇌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던 정치를 풀어나가는 리더십, 다양한 정책을 다룬 데 있다.

태종의 가장 큰 미덕은 '포용'의 리더십이었다. 당 고조 이연의 차남인 이세민은 맏형 이건성을 비롯한 형제들과 권력다툼을 벌이다 장안성 현무문에서 형인 태자와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거사 후 이세민의 측근들은 반대파의 척결을 주장했지만 이세민은 이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모두를 감싸 안았다.

이세민은 계파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라면 모두 중용했다. 특히 형 이건성의 심복이었던 위징(魏徵)을 과감하게 중용한 것은 정관의 치에서 가장 빛을 발하고 있다. 여러 신하들 중 간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위징은 훗날 태종이 명군으로 기록되게 하는 밑거름이었다. 간언한 위징과 이를 수용한 태종 모두 현자(賢者)였다.

정 의원이 책을 보내자 해석이 분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 의견과 여론을 잘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고언이면서,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 직언을 제대로 하라는 경고가 담겨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찬회동했다. 당 중진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였지만 화제는 단연 이-박의 만남이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을 바라보며 '정관의 치'를 떠올린다. 이세민이 그랬듯이 '마이웨이'만 가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해 진다.

/박치경 정치부장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